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구타당한 부인에 대한 부부치료

박태영, 박소영(송실대학교)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부인이 7살 된 딸을 데리고 쉼터에 기거하고 있는 부부를 상담한 부부치료 사례연구이다. 신혼 초부터 남편은 결혼을 후회하였고, 부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 남편은 부인이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폭력은 음주 후에 발생하였다. 부인은 남편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남편의 기준에 맞춰서 생활해야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답답하게 생각하였다. 특히 남편은 비밀이 많았고, 부인은 직설적이었다. 항상 남편의 음주 후에 폭력이 따랐기 때문에 부인은 남편의 음주에 대하여 매우 두려워하고 매우 민감하였다. 남편의 폭력은 1년에 3-4차례 발생하였다. 현재 부인은 이혼에 대하여 90% 정도 생각하였고, 부부의 재결합에 대해서는 10% 정도를 고려하고 있었다. 부부상담을 통하여 남편은 부부의 잘못된 삶을 깨닫고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를 바랐고, 부인은 남편의 폭력에 대한 단절을 바라고 있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단일사례연구로써 가족상담 축어록 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남편의 부인에 대한 구타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들과 남편의 부인에 대한 구타문제를 사라지게 한 요인들에 대한 관한 요인들과 가족치료상담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질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다양한 질적인 연구방법들 중 연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단일사례연구의 방식을 사용하며, 상담에 대한 기록인 축어록과 상담시에 기록된 메모를 원자료로 하여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과정을 통해 연구 목적에 따른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질적자료분석프로그램인 Atlas.ti 5.0을 사용하여 분석

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석에서 나타난 개념들의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질적자료의 연구 분석 및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 중 Miles와 Huberman이 제안한 매트릭스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3. 주요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개인상담과 부부상담을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치료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10개월 동안 총 14회기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한편, 연구자는 MRI 의사소통모델과 가족체계이론을 활용하여 부부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과 그러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 뒤에 있는 원가족과의 문제, 특히 부인과 친정아버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상담결과 남편은 결혼식날 폐백 때 친척들로부터 받은 절값에 대하여 시어머니와 부인과의 갈등에서 부인이 욕심이 많다고 생각하였고 신혼여행 첫날 밤에 부인의 배에 있는 수술한 상처를 발견하고 부인이 불미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였다. 그러나 두 부부는 이러한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의 부족하였다. 부인 또한 남편이 지나치게 완고하고 모든 것을 남편의 방식대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 점에 대하여 남편과 충돌하였다. 부인은 남편이 음주만 하면 과민하게 반응하였는데, 부인은 어렸을 때 친정아버지가 음주 후 자신을 때린 사건으로 인하여 남편의 음주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었고 남편은 자신의 음주에 대한 부인의 잔소리로 참다가 폭행을 하게 되었다. 14회의 부부상담을 통하여 부인은 남편의 음주와 폭행이 남편의 문제만이 아니라 부부 두 사람간의 의사소통문제와 부인의 친정아버지와의 문제가 걸려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한편, 남편은 엄격한 자신의 기준에 대하여 깨닫고 부인과 타협할 수 있는 의사소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준이 상대방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인식과 더불어 엄격한 기준에 대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4. 결론

남편의 음주와 그에 따른 부인에 대한 폭력문제가 치료자의 개입으로 인하여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에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대안을 타협할 수 있는 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으로 전환되었고, 부부는 부인의 원가족에서 아버지와 의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면, 이러한 부부간의 인식이 의사소통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부부가 상담을 통하여 별거 중에 주기적으로 만나게 되었으며, 부부관계의 변화와 더불어 부녀지간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었다. 부부는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상담이 거의 종결

될 시점에서 언제 부부가 함께 재결합할지에 대하여 상의를 하였다, 결론적으로 부부가 서로를 배려하는 표현을 하게 되었고 자녀를 의식하여 서로의 표현을 자제하였으며, 또한 자녀의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났다.